통상전략팀 현안조사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비관세 장벽

2003. 6.

K O T R A

목 차

Ⅰ. 서비스 국제 무역 환경 ·····1

1. 서비스 교역 동향 ·····1
2. 서비스 분야 개방 노력 및 그 이익 ·····7

Ⅱ. 각국의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현황 ·····9

1. 개요 ·····9
2. 국별 비관세 장벽 현황 ·····10
3. 서비스 분야별 비관세 장벽 현황 ·····17

Ⅲ. 향후 전망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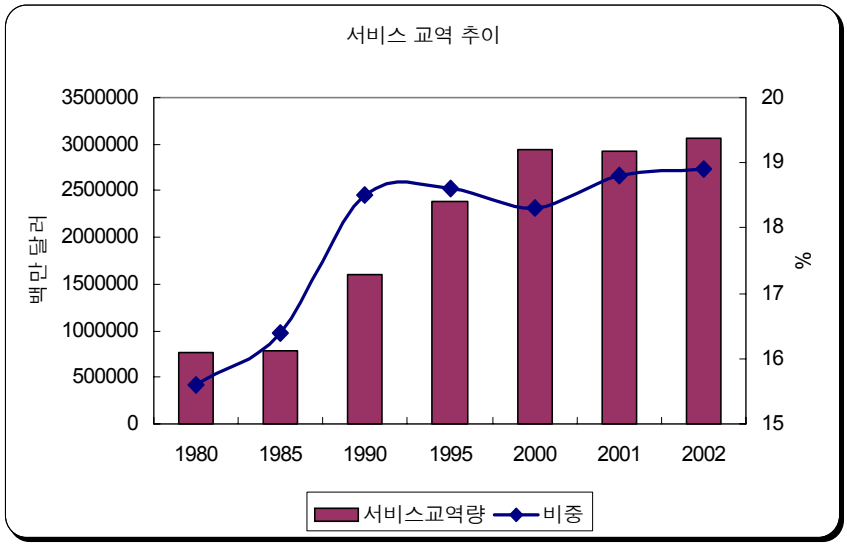
Ⅳ. 우리의 대응 방안 ·····22

Ⅰ. 서비스 국제 무역 환경

1. 서비스 교역 동향

□ 전통적으로 서비스[1]는 비교역재로 인식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경제의 서비스화'진전, 전자통신 및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

○ WTO에 따르면, 총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7,600억달러) 15.6%에서 2002년(30,600억달러) 18.9%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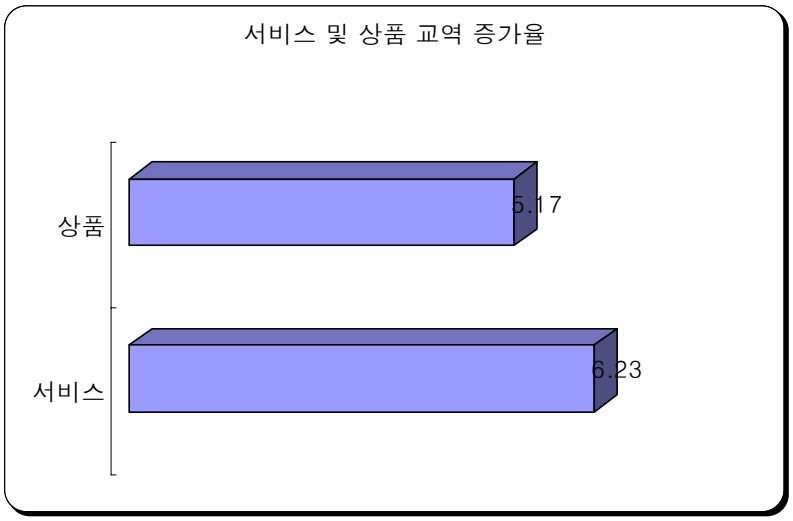


(자료원 : WTO)

□ 또한 WTO에 따르면 1980~2002년 중 전세계 서비스 교역은 연평균 6.23%로 증가하여 상품 교역 증가율(5.17%)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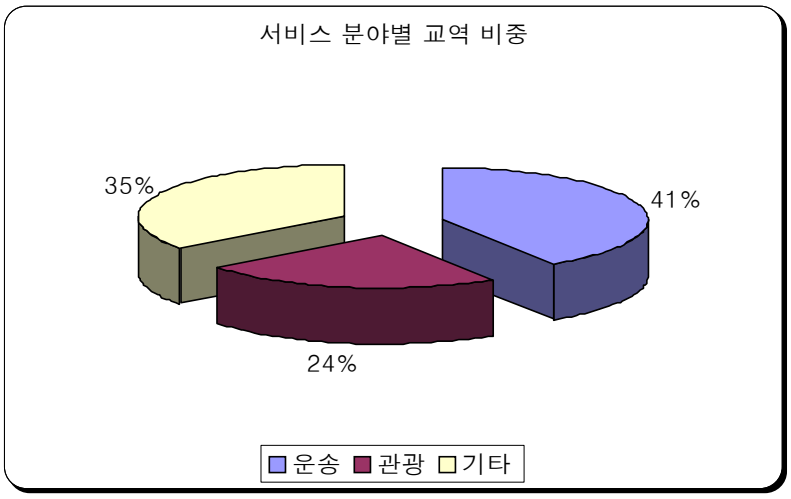
○ 서비스 교역 증가율 : 6.23%, 상품 교역 증가율 : 5.17%,

1) 본고에서 서비스란 WTO가 분류한 12개 분야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즉, 비즈니스,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레크리에이션, 운송, 기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함



(자료원 : WTO)

□ 한편 IMF[2)]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서비스 교역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운송(41%)이며, 관광(24%), 기타(35%)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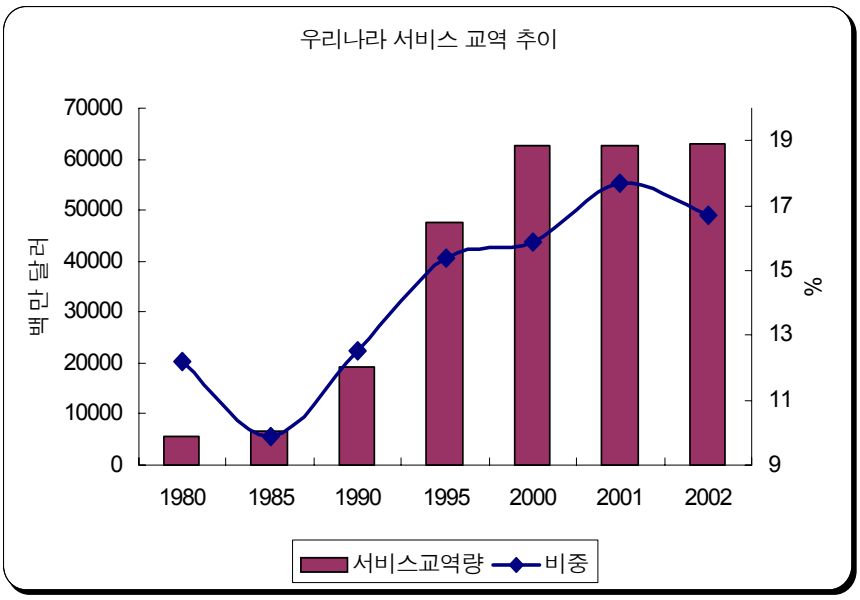


(자료원 : IMF)

2) IMF의 서비스 분류는 WTO의 분류와 달리, 컴퓨터 서비스를 사업서비스에서 분리하고 있음. 또한 시청각서비스(영화, 라디오 방송 등 포함)가 통신 서비스가 아닌 문화-레크리에이션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과 그 외 금융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도 빠르게 증가함

○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2.2%(55억달러)에서 2002년 16.7%(630억달러)로 증가함



(자료원 :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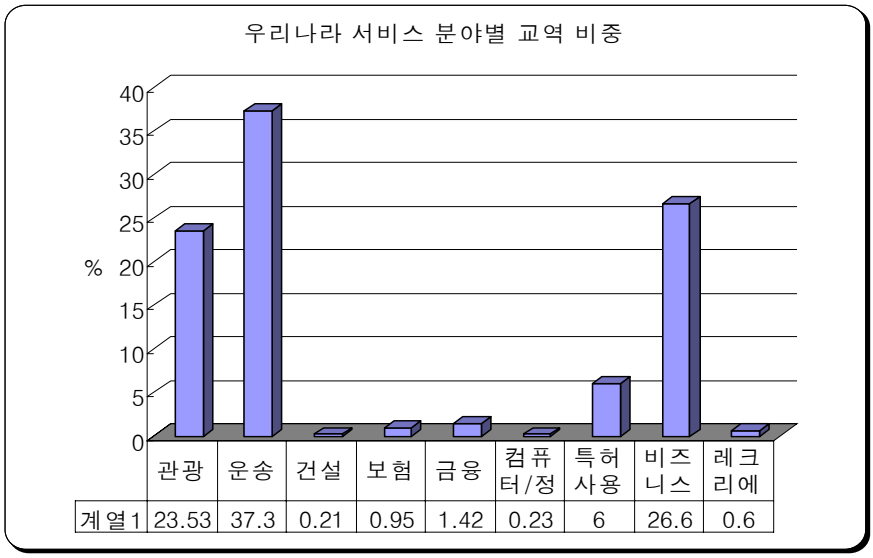
□ 1980 ~ 2002년간 우리 나라의 서비스 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전세계 서비스 교역 증가율을 훨씬 상회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0년 26위 서비스 수출 및 수입국에서 2002년 현재 세계 14위 서비스 수출국, 12위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

○ 또한, 세계 서비스 교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980년 0.72%에서 2002년 2.06%로 크게 상승

□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운송(37.3%)이며, 비즈니스(26.6%), 관광(23.53%) 순임

○ 반면, 건설[3](103백만달러, 0.21%), 컴퓨터 및 정보[4](104백만달러, 0.23%) 등의 교역량은 극히 미미함



(자료원 : IMF)
(주) 2002년 기준

□ 우리나라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운송, 건설, 금융 등 3개 분야에 불과

○ 특히 건설 분야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98년 이래 수출액이 연평균 85%씩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분야 제외) 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34%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 컴퓨터 및 정보, 특허 등 사용료(로얄티), 비즈니스, 보험, 레크리에이션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 폭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단, 레크리에이션 분야는 수출의 빠른 증가로 적자 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수출액과 수입액간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금융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의 18.5배에 달함. 반면, 보험 분야의 수입액은 수출액의 13.5배에 달함

---

3) 해외에서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프로젝트 건설을 의미. 단, 해외 자회사에 의한 건설은 포함하지 않음

4)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하드웨어 컨설팅(hardware consultancy), 소프트웨어 실행(software implementation), 정보 서비스(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유지・보수 포함

[(표 1) 우리나라의 분야별 서비스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전체	수출	12949.9	16805.4	22827.3	23412.3	26301.3	25564.6	26528.8	30533.6	29054.9	28142.6
		(-)	(29.8)	(35.8)	(2.6)	(12.3)	(-2.8)	(3.8)	(15.1)	(-4.8)	(-3.1)
	수입	15076.1	18606	25806.1	29591.7	29501.6	24540.5	27179.8	33422.8	32882.5	35603.2
		(-)	(23.4)	(38.7)	(14.7)	(-0.3)	(-16.8)	(10.8)	(22.9)	(-1.6)	(8.3)
	수지	-2126.2	-1800.6	-2978.8	-6179.4	-3200.3	1024.1	-651	-2889.2	-3827.6	-7460.6
		(-)	(15.3)	(-65.4)	(-107.4)	(48.2)	(132)	(-163.6)	(-343.8)	(-32.5)	(-94.9)
관광	수출	2964.4	3339.6	5150.4	4879.7	4731.1	6908.2	6840.6	6834.3	6384	5293.8
		(-)	(12.6)	(54.2)	(-5.2)	(-3.04)	(46.01)	(-0.97)	(-0.09)	(-6.59)	(-17.1)
	수입	3533.3	4512.5	6340.7	7482.3	6987.5	3470	4880.9	7131.9	7617	9067.6
		(-)	(27.7)	(40.5)	(18.0)	(-6.61)	(-50.3)	(40.65)	(46.1)	(6.8)	(19.04)
	수지	-568.9	-1172.9	-1190.3	-2606.6	-2256.4	3438.2	1959.7	-297.6	-1233	-3773.8
		(-)	(-106.2)	(-1.48)	(-118.6)	(13.3)	(252.4)	(-43.0)	(-115.2)	(-314.3)	(-206.1)
운송	수출	5444	7361.5	9272.1	8765	11005.1	10204	11466.1	13687.3	13180.2	13072.6
		(-)	(35.2)	(25.9)	(-5.5)	(25.6)	(-7.3)	(12.4)	(19.4)	(-3.7)	(-0.8)
	수입	6258.8	7114.1	9645	10229.5	10310	8982.9	9979.8	10879.3	10708.2	10680
		(-)	(13.7)	(35.6)	(6.1)	(0.8)	(-12.9)	(11.1)	(9.01)	(-1.6)	(-0.3)
	수지	-814.8	247.4	-372.9	-1464.5	695.1	1221.1	1486.3	2808	2472	2392.6
		(-)	(130.4)	(-250.7)	(-292.7)	(147.5)	(75.7)	(21.7)	(88.9)	(-11.9)	(-3.2)
건설	수출	N/A	N/A	N/A	N/A	N/A	5.4	10.4	29.1	81.7	119.1
		(-)	(-)	(-)	(-)	(-)	(-)	(92.6)	(179.8)	(180.8)	(45.8)
	수입	N/A	N/A	N/A	N/A	N/A	6.4	5.2	15.8	15.1	13
		(-)	(-)	(-)	(-)	(-)	(-)	(-18.8)	(20.39)	(-4.4)	(-13.9)
	수지	N/A	N/A	N/A	N/A	N/A	-1	5.2	13.3	66.6	106.1
		(-)	(-)	(-)	(-)	(-)	(-)	(620)	(155.8)	(400.8)	(59.3)
보험	수출	23.2	50.1	-19.9	95.1	-1.9	51.5	48.4	68.2	60.1	41.6
		(-)	(115.9)	(-139.7)	(577.9)	(-101.9)	(2810.5)	(-6.01)	(40.9)	(-11.9)	(-30.8)
	수입	97.4	179	254.7	203.4	162.2	142.8	114.2	146	373.9	564
		(-)	(83.8)	(42.3)	(-20.1)	(-20.3)	(-11.9)	(-20.02)	(27.8)	(156.1)	(50.8)
	수지	-74.2	-128.9	-274.6	-108.3	-164.1	-91.3	-65.8	-77.8	-313.8	-522.4
		(-)	(-73.7)	(-113.0)	(60.6)	(-51.5)	(44.4)	(27.9)	(-18.2)	(-303.4)	(-66.5)
금융	수출	62.4	91.9	105	122.7	159.4	145.1	477.7	704.8	532.7	861
		(-)	(47.3)	(14.3)	(16.9)	(29.9)	(-8.9)	(229.2)	(47.5)	(-24.4)	(61.6)
	수입	102.4	88.8	129.7	102.5	74.1	108.9	185.9	191.2	82.9	46.5
		(-)	(-13.3)	(46.1)	(-20.9)	(-27.7)	(46.9)	(70.7)	(2.9)	(-56.6)	(-43.9)
	수지	-40	3.1	-24.7	20.2	85.3	36.2	291.8	513.6	449.8	814.5
		(-)	(107.8)	(-896.8)	(181.8)	(322.8)	(-57.6)	(706.1)	(76.1)	(-12.4)	(81.1)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컴퓨터 및 정보	수출	7.2 (-)	6.6 (-8.3)	4.9 (-25.8)	6.1 (24.5)	3.2 (-47.5)	4.5 (40.6)	3.9 (-13.3)	10.6 (171.8)	16.1 (51.9)	19.6 (21.7)
	수입	63.2 (-)	72.9 (15.3)	93.3 (27.9)	76.2 (-18.3)	65.6 (-13.9)	90.4 (37.8)	69.1 (-23.6)	91.8 (32.9)	103.6 (12.9)	124 (19.7)
	수지	-56 (-)	-66.3 (-18.4)	-88.4 (-33.3)	-70.1 (20.7)	-62.4 (10.9)	-85.9 (-37.7)	-65.2 (24.1)	-81.2 (-24.5)	-87.5 (-7.8)	-104.4 (-19.3)
특허 등 사용료	수출	129.5 (-)	154.8 (19.5)	299.2 (93.3)	184.9 (-38.2)	252 (36.3)	260.1 (3.2)	455.1 (74.9)	688.1 (51.2)	923.5 (34.2)	826.2 (-10.5)
	수입	1414.3 (-)	1719.8 (21.6)	2384.8 (38.7)	2430.5 (1.9)	2413.5 (-0.7)	2369.3 (-1.8)	2661 (12.3)	3221.1 (21.0)	3052.9 (-5.2)	2978.7 (-2.4)
	수지	-1284.8 (-)	-1565 (-21.8)	-2085.6 (-33.3)	-2245.6 (-7.7)	-2161.5 (3.7)	-2109.2 (2.4)	-2205.9 (-4.6)	-2533 (-14.8)	-2129.4 (15.9)	-2152.5 (-1.1)
비즈니스	수출	3473.6 (-)	4738.1 (36.4)	6760.8 (42.7)	7951.7 (17.6)	8633.2 (8.6)	6579.5 (-23.8)	6034.7 (-8.3)	7199.8 (19.3)	6388.4 (-11.3)	6244.8 (-2.2)
	수입	2901.8 (-)	4058.3 (39.9)	5806.5 (43.1)	7806.1 (34.4)	8021.7 (2.8)	7716 (-3.8)	8275.1 (7.2)	10538.6 (27.4)	9513.1 (-9.7)	10695.7 (12.4)
	수지	571.8 (-)	679.8 ((18.9)	954.3 (40.4)	145.6 (-84.7)	611.5 (319.9)	-1136.5 (-285.9)	-2240.4 (-97.1)	-3338.8 (-49.0)	-3124.7 (6.4)	-4450.9 ((-42.4)
레크리에이션	수출	N/A (-)	N/A (-)	N/A (-)	N/A (-)	5 (-)	14.1 (182)	28.9 (104.9)	136.6 (372.7)	138.3 (1.24)	179.9 (30.1)
	수입	N/A (-)	N/A (-)	N/A (-)	N/A (-)	136.9 (-)	91.8 (-32.9)	153.1 (66.8)	159.9 (4.4)	220.2 (37.7)	201 (-8.7)
	수지	N/A (-)	N/A (-)	N/A (-)	N/A (-)	-131.9 (-)	-77.7 (41.1)	-124.2 (-59.8)	-23.3 (81.2)	-81.9 (-251.5)	-21.1 (74.2)

(자료원)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3.6

(주) 괄호안은 증감율

2. 서비스 분야 개방 노력 및 그 이익

1) 서비스 분야 개방 노력

□ 1995년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정

○ 서비스 분야 교역 증가에도 불구,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각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바, GATS 제정을 통해 다자간 체제에서 서비스 분야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게 됨

○ GATS에 따라, 2000년부터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증진을 위한 협상 개시

□ GATS 규정에 따라 구체적 양허약속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 제출

○ 모든 WTO 회원국들은 양허약속표를 통해 서비스 분야별 시장 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양허를 법적으로 약속하게 됨

□ 투자에 관한 대표적 협정

○ 특히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 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불완전하나마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각국이 제출한 시장 개방 요청서 및 양허안을 바탕으로 금년 5월부터 양자협상 진행 중

○ 2003.6 현재 우리나라는 36개국에 시장 개방을 요청하였고, 25개국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았음

-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안에는 법률, 보건의료, 교육, 우편, 시청각서비스(스크린쿼터) 등 현재 양허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가 포함되어 있음

○ 2003.5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함

- 우리나라 양허안에는 법률, 교육 등 기존 미양허 분야에 대한 개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의료, 시청각서비스, 뉴스제공업 등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함

○ 미국, EU 등 선진국은 금융, 통신, 환경, 비즈니스 등 폭넓은 분야의 개방을 추구하나, 개도국은 이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며 인력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

○ 2004년말까지 일괄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2)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효과

□ Chadha, Brown이 함께 현재 WTO 협상이 2005년 전세계적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바에 따르면,

○ 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제조업 개방으로 인한 이득의 5배로, 전체 개방으로 인한 이득(8,300억 달러)의 82%에 해당하는 6,800억 달러에 달할 것임

○ 한편 선진국은 서비스 개방으로 인한 전체 이득의 80%인 5,500억 달러의 이득을 얻을 것이나, 이득 증가율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이득증가율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추정

[(표 2) 개방으로 인한 이득]

(단위 : 백만 달러, %)

	서비스 개방에 따른 이득		전체 이득(제조업 포함)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전세계	2.1	687,865	2.5	835,776
선진국	2.0	550,780	2.4	656,028
개발도상국	2.5	137,085	3.2	179,748
한국	2.7	15,527	3.9	22,018

(자료원 : Chada et al.(2000))

Ⅱ. 각국의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현황

1. 개요

□ 개념

○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는바, 크게 수량 제한 등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과 기술 규정 등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 장벽으로 나뉨

○ 한편,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이란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의 4가지 형태(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5)]

○ 양허표에 나타난 비관세 장벽의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유형
  ·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 : 인허가, 쿼터 설정
  · 법인 설립 형태 제한 : 합작 요건, 지사 설립 요건
  · 외국 자본 참여 제한 : 지분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유형
  · 거주 요건
  · 자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
  (예) TV 방송 : 연간 방송시간의 51%, 유럽 제작물 방영 의무

□ 측정 방법

○ GATS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 항공 운송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교역 가능 서비스가 양허 대상인바, 이는 총 155개에 달함. 여기에 4가지

5)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공급형태를 감안하고,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를 별개로 파악할 경우 양허 가능 세부 분야는 1,240개에 달함

○ 본고에서는 GATS의 양허약속표상 각 분야별 제한 현황을 통해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단, GATS의 양허약속표는 현실상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각국의 양허 약속은 크게 3개로 분류 가능한바, 비관세 장벽의 계량화를 위해 각각의 경우에 0, 0.5, 1을 부여코자 함. 즉, 계량화된 점수가 높을수록 비관세 장벽이 높은 것을 의미함

- 'None' : 주어진 서비스 공급 형태에서 시장 접근이나 내국민 대우가 보장됨(제한 없음 : 0)
- 'Other' : 주어진 공급 형태에 제한이 존재하며, 이러한 제한은 법적으로 구속됨(부분 제한 : 0.5)
- 'Unbound' : 시장 접근이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법적으로 약속되지 않음(완전 제한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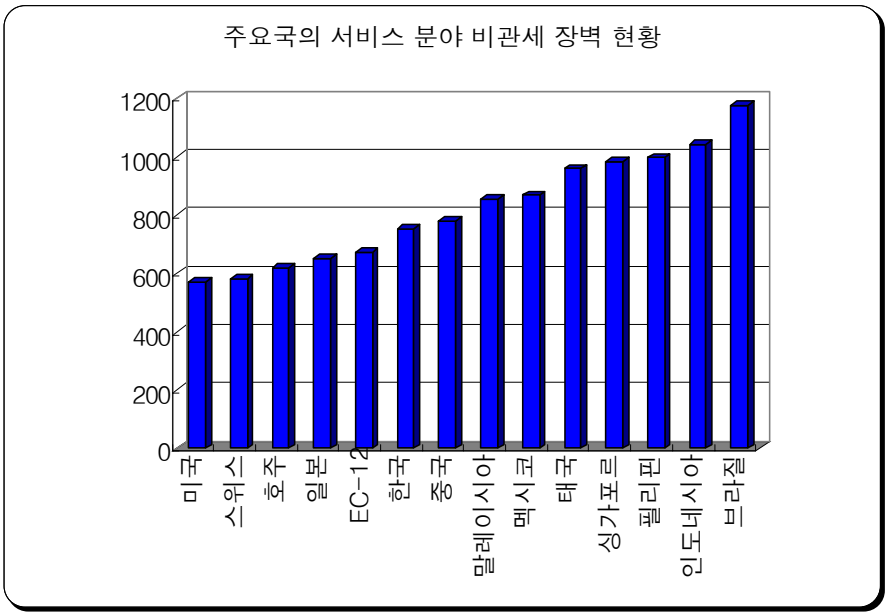
2. 국별 비관세 장벽 현황

□ 개관

○ 조사 대상 14개국[6] 중 브라질의 비관세 장벽이 가장 높고(1174), 인도네시아(1043.5), 필리핀(996.5), 싱가포르(983.5)의 순임

○ 반면, 미국의 비관세 장벽이 가장 낮고(569), 뒤이어 스위스(579.5), 호주(617) 순으로 나타남

6) 조사대상국 :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EC12,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호주



□ 우리나라는 14개국 중 6번째로 비관세 장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스위스, 호주, 일본, EC에 이어 6위를 차지하여 서비스 비관세 장벽이 대부분의 개도국보다는 낮으나 선진국 중에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현황은 국별로 많은 차이를 노정

○ 국가별로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수는 600개 이하에서 1100개 이상으로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

□ 선진국일수록 비관세 장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7개국[7][8]의 비관세 장벽 평균은 672.6으로 개발도상국 7개국[9] 비관세 장벽 평균(970)의 69%에 그침

○ 또한 선진국은 총 양허가능 분야의 54.2%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개도국의 제한 정도는 78.2%에 달함

7) OECD 회원 국가를 선진국으로, OECD 회원이 아닌 국가를 개도국으로 파악하기로 함.
8) 미국, 멕시코, 스위스, EC(12), 일본, 한국, 호주
9) 말레이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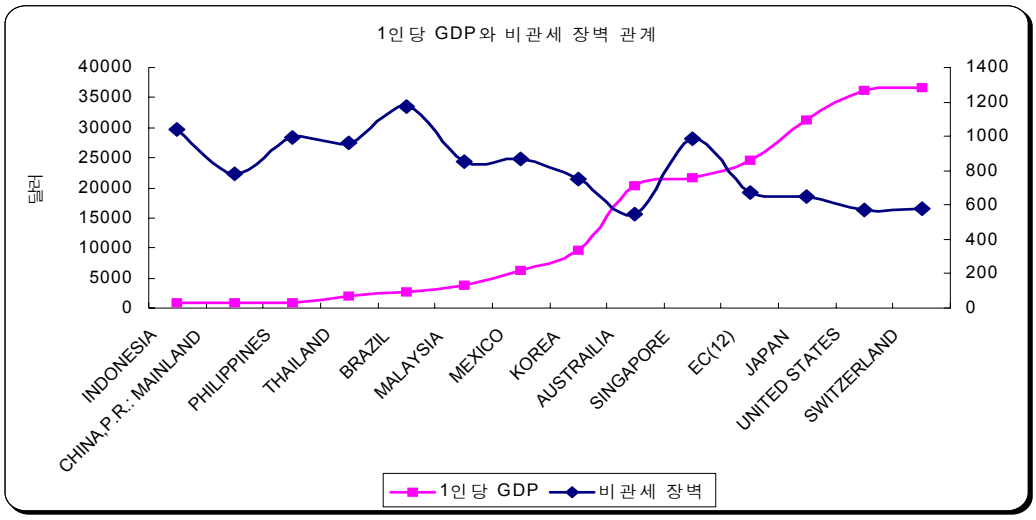
○ 한편, 선진국 7개국의 완전제한(3,697)은 전체 14개국의 완전 제한(9,896) 중 37.4%를 점하는데 그친 반면, 개발도상국 7개국(6,199)은 62.6%를 점했으며,

○ 제한 없음(전체 14개국 : 4,269)의 경우, 그 중 69.4%를 선진국(2,962)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1,307)은 30.6%를 점하는 데 그침.

[(표 3)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현황]

발전 정도	시장접근(Market Access)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완전제한	부분제한	제한없음	완전제한	부분제한	제한없음
총 합	4,925	1,948	1,807	4,971	1,248	2,462
(%)	(100)	(100)	(100)	(100)	(100)	(100)
선진국	1,866	1,187	1,287	1,831	835	1,675
(%)	(37.9)	(60.9)	(71.2)	(36.8)	(66.9)	(68.0)
개발도상국	3,059	761	520	3,140	413	787
(%)	(62.1)	(39.1)	(28.8)	(63.2)	(33.1)	(32.0)

○ 또한, 각국의 1인당 GDP와 서비스 분야 사이의 상관관계는 -0.75로 각국의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서비스 비관세 장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IMF, WTO)

□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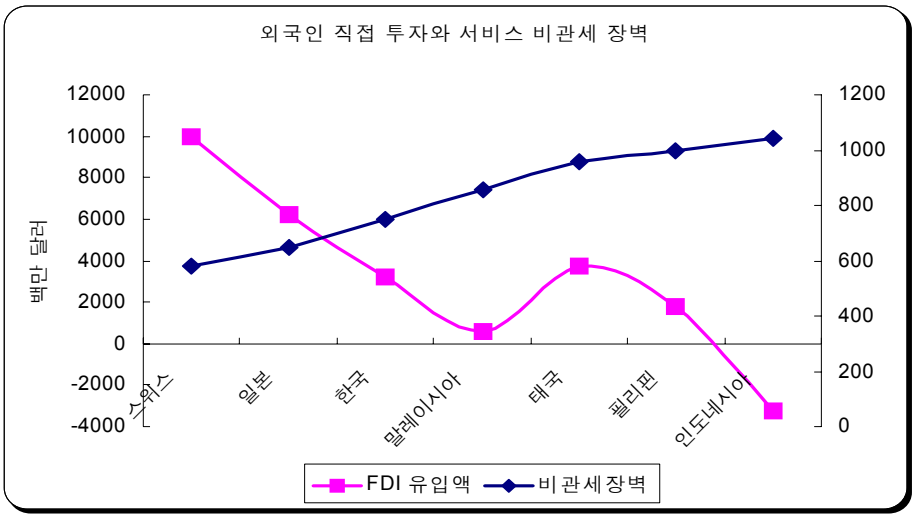
○ 구체적 양허 약속표에는 상기한 대로 상업적 주재(Mode 3)가 서비스 거래 형태에 포함되어 있어 GATS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 협정이라 할 수 있는바,

○ 경제 규모, 노동력 및 부동산 등 인프라가 FDI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감안하여 GDP, 인구, 면적이 비슷한 7개국[10]을 별도로 살펴보면,

○ FDI 유치액과 서비스 비관세 장벽사이에는 -0.85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서비스 비관세 장벽이 낮을수록 FDI 유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DI 유치를 결정짓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의 높이가 FDI 유치를 저해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 비관세 장벽이 높을 경우, 해외 자본의 서비스 시장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FDI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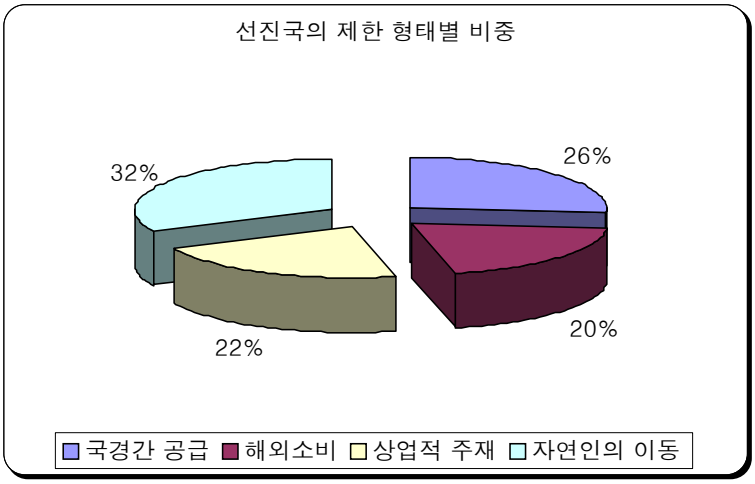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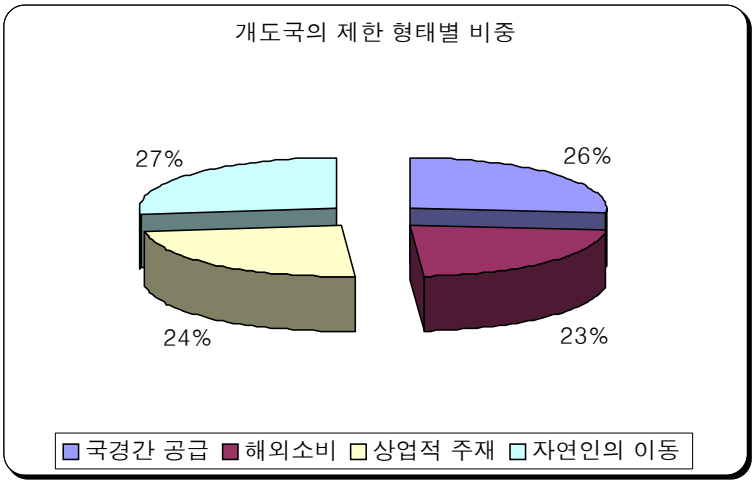
(자료원 : UNCTAD, WTO)

10) 말레이시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 제한 형태별로 보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 이동에 대한 제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의 경우 인력이동 제한이 전체 제한의 32%를 차지하는 반면, 개도국은 27%로 상대적으로 낮음





□ 서비스 부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인바,[11]

○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규 및 제도상의 제한과 함께 문화적 차이 및 차별적 관행이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 환경』

□ 차별적 관행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상 애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일본의 경우 건설 업계의 담합적 관행, 건설 공사 시 가격·품질 비교가 아닌 건설 회사와 철강 회사간 계열 관계에 따른 배타적 철강제품 구매 관행이 우리 업계가 일본 건설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로 지적되었음[12)]

- 특히 일본정부는 외국 건설회사의 일본 진출확대를 위해 건설성 (현재의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 건설시장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 건설성 등 관련기관 출신 임직원을 통하여 공사의 낙찰예정가격을 사전에 입수해 건설회사간 담합을 행하는 등 아직도 외국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각종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

○ 태국에서는 현지 Plant 공사 등 수주 시, 본국 은행의 보증외에 현지은행을 통한 재보증이 관행화되어 있어 현지 진출 건설 업계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3)]

- 특히, 우리나라 은행의 보증(Standby L/C 등)시 현지은행은 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현지 은행을 통한 재보증 요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음

□ 한편 법규 및 제도상 제한으로 인한 장벽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상 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보험업에서의 외국기업 차별 제도, 해운업에서의 국적선 규정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음[14)]

---

12) KOTRA 도오꾜오 무역관 보고
13) KOTRA 방콕 무역관 보고
14) 일본 경제산업성, 『2003년판 불공정 무역보고서』

- 구체적으로 보험업에서는 국내 업체와 달리 외국 보험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외국 은행의 지사 및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음

- “1936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36)”은 정부 화물의 최소한 50%는 미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04년 군사화물 운송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of 1904)"은 미국의 모든 군사화물은 원칙적으로 미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 중국은 은행 지점 신설 혹은 신규 영업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외국 은행의 현지 진출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15)]

- 은행 인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인가 및 본인가에 따르는 최소 소요 기간이 8개월이나 실제로는 1년 이상이 소요될 뿐아니라, 인가 예정 일자도 불명확한바, 소요기간을 규정대로 지키거나 인가 예정 일자를 통지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는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비율을 제한하여 현지 진출 건설 업체가 건설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6)]

- 싱가포르 정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고용비율에 의하면, 싱가포르 고용인 1명당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음

-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에게 비숙련자 1인당 월 싱 $470, 숙련자 1인당 월 싱$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싱가포르 건설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건설업체들은 외국인 고용비율이 낮은 관계로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싱가포르인을

15) KOTRA 상해 무역관
16)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고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싱가포르인이 건설현장 근로자(노무자)로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어 건설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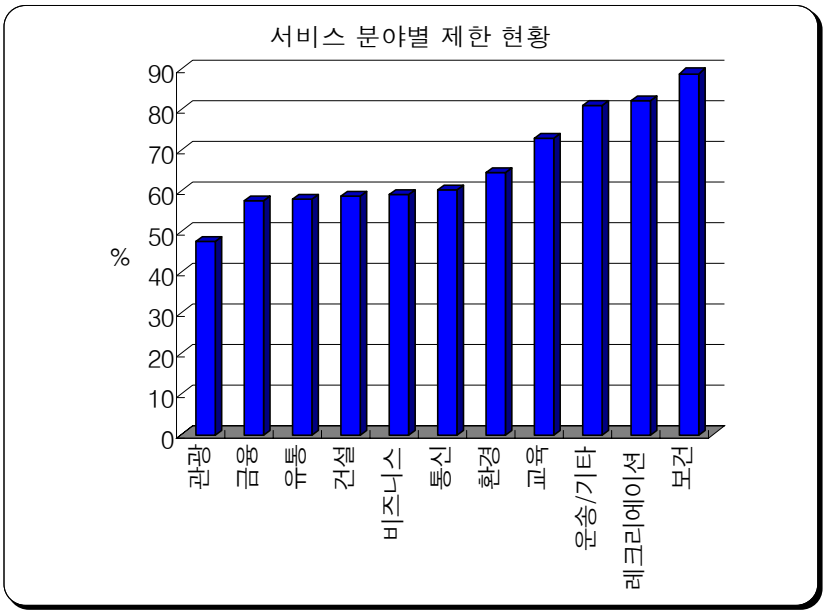
○ 싱가포르의 예와 비슷하게 태국에서는 외국인 1인에 대해 현지인 4명을 고용하는 현지인 고용비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고용비율의 완화가 요청됨

3. 서비스 분야별 비관세 장벽 현황

□ 개관

○ 조사 대상 14개국의 경우, 12개 서비스 분야 중 보건 분야의 제한이 가장 높고(88.80%)[17], 레크리에이션(82.05%), 운송(81.03%), 교육(72.8%)의 순임

○ 반면, 관광 분야의 제한이 가장 낮고(47.4%), 뒤이어 금융(57.4%), 유통(57.9%) 순임



17) 서비스 분야별 전체 개방 가능 경우의 수에 대한 양허표상 제한 수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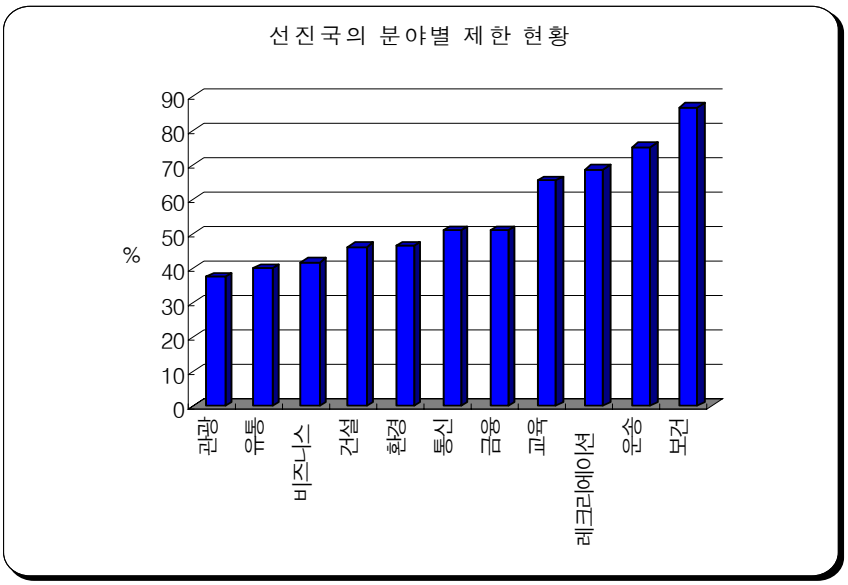
□ 서비스 분야별 제한 순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유사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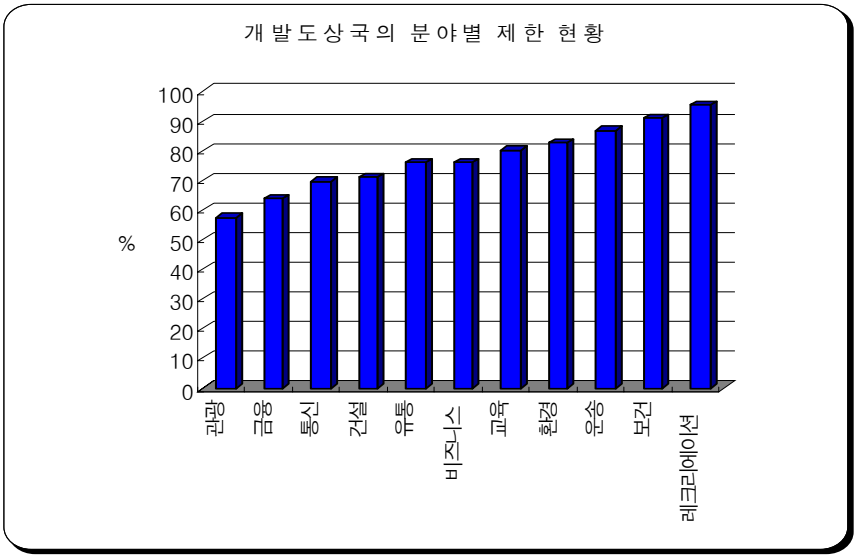
○ 관광, 금융, 비즈니스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분야의 제한이 낮은 반면, 보건,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제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가 가장 작은 분야는 보건으로 양자간 차이는 4%포인트에 불과함. 반면 환경 분야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36.1% 포인트 차이), 이는 환경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 차이에 기인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분야별 제한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선진국 : 37.5%~86.8%, 개발도상국 : 57.4%~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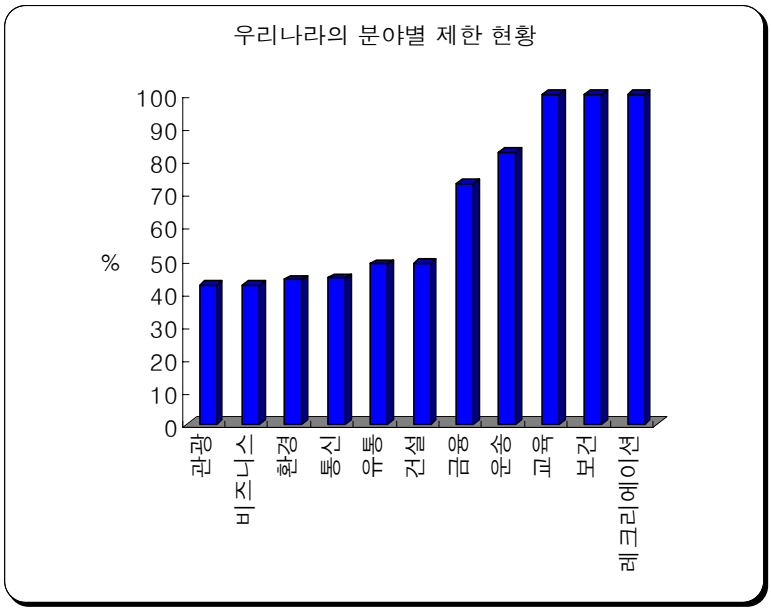
○ 한편,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금융, 유통 분야의 제한 정도가 낮은바,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 기술이전, 금융위기 이후 금융분야 구조조정, 사회 간접 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통신, 금융, 운송 분야에서 자발적 자유화(autonomous liberalization)를 시도한 데 기인함





□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 분야의 제한(42.2%)이 가장 낮고, 비즈니스(42.3%), 환경(43.8%) 순임

○ 반면, 교육, 보건, 레크리에이션은 미양허 분야로 조사 대상 14개국의 평균보다 제한도가 높음



Ⅲ. 향후 전망

□ 1995년 GATS 제정 이래,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각국의 노력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증진에 기여

○ 그러나, 국별/분야별 제한 정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이 낮고
- 보건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보다는 비즈니스, 유통 등 사회 간접자본 관련 분야에서의 개방도가 높았음

□ DDA 협상으로 서비스 분야 교역 자유화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

○ 각국이 제출한 양허요청서 및 양허안을 바탕으로 금년 5월부터 개방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 경쟁력 보유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노력을 가속화할 것

□ 서비스 분야별로 존재하는 제한 격차는 현상 유지 혹은 확대될 전망

○ 각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개방한 분야,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타국의 개방을 요청하는 반면, 경쟁력 미보유 분야 혹은 공공성이 높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관광, 건설, 유통 등 기존에 제한 정도가 낮은 분야의 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이나, 보건, 교육 등 분야의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법규적·제도적 장벽과 함께 암묵적 관행 등 비관세 장벽이 서비스 교역의 걸림돌로 부상 전망

○ 일본의 자국 기업간 암묵적 담합 관행, 태국의 현지 은행을 통한 재보증 관행에서 보듯,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관행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

□ 인력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차이로 향후 서비스 협상 난항 예상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DDA 협상 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미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한도가 높은 선진국 시장에서 인력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선진국은 숙련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주로 비즈니스, 유통, 환경, 금융 분야에서 인력 시장 개방에 접근하고 있어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18)]

18) 외교통상부

Ⅳ.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방안

□ WTO 서비스 협상은 기회이자 위기

○ WTO 협상을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는 우리에게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서비스 수지 적자 구조 심화라는 위기로 작용 전망

□ WTO/DDA 협상을 통한 교역 상대국의 서비스 비관세 장벽 제거

○ 이미 개방했거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경쟁력을 보유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국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를 최대한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업계가 상대국 시장 진출시 겪는 애로 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한 정도가 낮은 분야 : 건설, 비즈니스, 환경, 유통
-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 : 건설, 금융(보험 제외)([표 1] 참조)
-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 : 운수[19)]

○ 특히, 비관세 장벽은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바, 세계적으로 관세장벽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의 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 또한,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하여 서비스 적자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현황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0년 이래 1998년을 제외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19) LG주간경제, 2002년 12월호. RCA(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큰 분야

- 199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적자액은 74억 달러로 1980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액을 기록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추이(백만 달러)]

구분	수입(증감율)	수출(증감율)	서비스수지(증감율)
1990	9636.9(7.6)	9022.9(-4.0)	-614.9(-238.5)
1991	10014(3.9)	7861.3(-12.9)	-2152.7(-250.1)
1992	10721.6(7.1)	7837.8(-0.3)	-2883.8(-33.9)
1993	12949.9(20.8)	10823.7(38.1)	-2126.2(26.3)
1994	16805.4(29.8)	15004.8(38.6)	-1800.6(15.3)
1995	22827.3(35.9)	19848.5(32.3)	-2978.8(-65.4)
1996	23412.3(2.6)	17232.9(-13.2)	-6179.4(-107.4)
1997	26301.3(12.3)	23101(34.1)	-3200.3(93.1)
1998	25564.6(-2.8)	26588.7(15.1)	1024.1(132)
1999	26528.8(3.8)	25877.8(-2.7)	-651(-163.6)
2000	30533.6(15.1)	27644.4(6.8)	-2889.2(-343.8)
2001	29054.9(-4.9)	25227.3(-8.7)	-3827.6(-32.5)
2002	28142.6(-3.1)	20682(-18.0)	-7460.6(-94.9)

(자료원 : 한국은행)

- 2002년 현재 서비스 수출액은 290억 달러로 상품 수출(1,625억 달러)의 18%에 불과함

- 2002년 현재 제조업 등 비서비스 업종 해외투자 건수는 총 투자 건수의 65.13%인 반면, 건설,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은 34.87%에 불과

○ 특히, 우리보다 개방도가 낮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개방을 관철시킴으로써 진출 모멘텀 확보 가능

- 건설, 금융, 유통 등의 분야에서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인바,

-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싱가포르·태국의 현지인 고용 의무 조건 완화, 인도네시아의 내국 업체와의 합작 의무 완화 등 관철 필요

□ 우리 서비스 시장의 전략적 개방통한 서비스 산업 고도화 도모

○ 서비스 분야 개방은 상품 시장 개방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FDI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WTO에 따르면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익에는 서비스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생산 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 이익 증대, 선진 기술 이전, 효율적 사회 간접 자본 제공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 등이 있음

- [외국인 직접 투자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p.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 규모가 비슷한 7개국의 경우,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이 낮을수록 FDI 유치액이 많았음

- WTO에의 서비스 분야 양허를 통해 외국 투자자에게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제시함으로써 최근 부진한 FDI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함

○ 무조건적 개방이 아닌,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점검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선택적 개방시 상기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인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투자 환경 개선 및 외자 유치 확보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지속적 구조 개혁과 함께 금융분야 개방 확대를 통한 금융 선진기술을 확보 필요

- 미양허 분야 중 특히 교육 분야는 지식 기반 사회 진입에 있어 그 역할이 무엇보다도 큰 바, 기초 공공교육이 아닌 성인 교육, 평생 교육에 한정하여 개방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공급해야함

· 2003년 3월 국내 외국기업 67개사 CEO를 대상으로 무역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직원 채용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개사에 불과한 반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33개사(49.3%),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는 응답 역시 33개사(49.3%)로 나타난 바 있음

□ 암묵적 관행 제거 노력

○ 법규제 제도적 장벽외에도 암묵적 관행 등이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 담합, 건설 회사와 철강 회사간 계열 관계에 의한 배타적 철강 구매 관행, 불필요한 현지 은행 재보증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하고, 아울러 일반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개방적인 풍토 조성을 요청하여 우리 업체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함